

## 영상매체의 고혈압관련 기사 내용 분석

고일선·이태화·김익숙(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정책 연구소)

이선미(연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이정자(국민고혈압 사업단)

### 목 차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논의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영문초록

### I. 서론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국민소득과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되었고 생활양식 및 식생활에서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민의료보험 확대실시 등의 보건의료체계 개선은 평균수명의 연장과 인구의 고령화를 가져왔고, 이는 국민의료비 증가 등의 문제를 야기시킴으로써 변화된 인구구조에 적합한 보건정책의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어지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65세이상 노인인구의 구성비는 1990년에 5.1%에서 2000년에는 7.1%, 2018년에는 12%로 증가될 예정이며 일본의 경우 노인인구 구성비가 5%에서 12%가 되는데 40년이 걸린 반면 우리나라는 28년만에 노령국가가 됨으로써 급격한 노인의료비의 증가는 보험재정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창보(2001)의 노인인구 증가 추세에 따른 노인급여비 지출의 장기예측을 위한 추계연구에서 우리나라 65세 이상 장래 보험적용 인구는 1990~2020년까지 연평균 3.9%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전체 인구에 대한 연평균 증가율 1%를 크게 넘는 수준이다. 평균수

명 연장에 따라 75세 이상 인구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10년 이후 65~69세 인구에 비해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급여비는 2005년에 약 4조원, 2010년에 약 8조 6천억원, 2015년에 약 15조 5천억원, 2020년에 약 2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증가는 외래보다는 입원에서, 연령층으로 볼 때 75세 이상이 주도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노인인구의 특성상 65세 이상 노인 연령층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전체 인구의 유병률보다 1.3~2.3배 가량 높아(의료보험연합회, 1997) 전체 진료비 상승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0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국민의 17.2%, 80세 이상의 고령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약 1/3을 차지하면서 노인의료비는 1985년 전체의료비의 약1/4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나 1993년 30%를 돌파하였고 1999년에는 37%에 달하고 있다(권순원, 2001). 이는 일본의 국민의료비가 연율 6%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노인의료비는 연율 8%로 고속 성장하고 있어 고령화와 함께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노인의료비에 대한 정책마련이 요구되어진다.

변화된 생활양식과 식생활은 질병의 양상에 있어서

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1960년대에는 폐렴이나 기관지염 그리고 결핵 등에 의한 사망이 상위권을 점하고 있었으나, 1990년대 들어서는 악성 신생물이나 뇌혈관 질환 및 심장병과 교통사고 등에 의한 사망이 전체 사망의 약 반을 차지하므로써 선진국의 사망양상으로 바뀌게 되었다(유승훈 등, 1994).

1999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5대 사망원인은 순환기계 질환(23.3%), 신생물(22.3%), 불의의 사고(12.1%), 소화기계 질환(6.1%), 호흡기계 질환(5.3%) 순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순환기계 질환으로 인한 전체 사망자 중 고혈압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6%를 차지할 정도로 고혈압은 예방·관리와 치료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주요대상이 되었다.

1995년 기준 전체 사망 중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만성간질환, 고혈압, 당뇨병, 사고 등 7대 사인에 의한 사망이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이들 상병들은 70세 미만의 조기사망의 주원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난치적 특성으로 국민의료비 증가와 삶의 질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보건복지부, 1999). 특히 우리나라 주요 성인질환 중 당뇨병의 경우 40대에서는 23.0명, 50대에서는 46.6명, 60대에서는 79.7명, 70대 이상에서는 49.8명인데 비해 고혈압의 경우 40대에서는 34.7명, 50대에서는 82.8명, 60대에서는 112.9명, 70대 이상에서는 101.5명으로 당뇨병의 1.7배라는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고혈압은 그 자체만으로는 뚜렷한 증상이 없어 무시하기 쉬운 상태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순환기계통 합병증인 뇌출혈, 뇌경색증, 심근경색증, 협심증, 심부전 등의 발생이 혈압의 정도와 깊은 상관관계가 있음이 이미 증명되었다(김기순, 1997). 그리고 고혈압은 증상이 인지될 때에는 이미 심각한 후유증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질병발생시점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의 조기발견과 함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고혈압의 효율적인 관리대책이 될 것이다(문현경 등, 1999).

미국, 일본, 핀란드 등 세계 많은 나라에서 범국가적인 지역사회 고혈압관리 사업을 시행하여 많은 효과를 보았다(김기순, 1997). 미국의 경우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국가와 민간단체가 고혈압에 대한 광범위한 교육을 실시한 결과, 고혈압이 있으면서도 진단받지 못하거나 고혈압이 있는 줄 알면서도 치료받지 않는 고혈압환자의 비율을 20%수준까지 낮춤으로써 심혈관계질환에 의한 사망이 크게 감소하였고, 2010년 국가건강증진목표에서 고혈압을 심장질환과 뇌졸중의 주요 원인으로 다루고 이를 관리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국민고혈압사업단, 2001).

지역사회 일차보건 의료기관 중심의 고혈압관리 사업의 목표는 첫째, 고혈압의 일차예방으로 고혈압이 발생되기 전에 건강인이나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통해 고혈압 발생의 위험요인이 되는 생활습관을 교정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정기적인 혈압측정의 필요성을 교육하여 고혈압의 발생을 저하시킨다. 둘째, 고혈압의 이차예방으로 이미 발생한 환자를 조기에 진단해서 병의 초기부터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병의 진행을 막고 중요한 합병증인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질환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다. 지속적인 관리방법으로는 약물치료, 비약물치료 등이 가능하며, 보건교육을 통하여 치료 순응도를 높인다. 셋째, 공공보건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력들의 질병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협동정신을 배양하는 것이다(김기순, 1997). 이와 같이 고혈압은 치료가 아닌 예방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건강인과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 고혈압 환자 등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보건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보건교육의 내용은 교육의 제공자와 대상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대중매체를 통해 고혈압의 인지도를 높이도록 교육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1994년 10월 제네바에서 열린 WHO 고혈압 전문가 위원회에서는 고혈압에 대한 정의와 분류, 예방 및 치료·관리방법을 제시하였고, 그 중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고혈압 예방과 관리의 주된 목적은 고혈압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를 위한 세가지 방법으로 전국민 교육과 전문가 교육, 환자 교육으로 나뉘는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는 라디오, 텔레비전 등과 같은 대중매체의 활용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경제성장과 함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국민들은 단순한 수명연장이 아닌 삶의 질을 높이는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일반 대중은 기본적인 보건의료와 관련된 전문 지식을 얻기 어려운데다 엄격한 광고규제까지 있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한정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일반대중에게 신문, 방송 등의 대중매체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정보원이 된다(윤지희 등, 1999). 특히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997년 기준 국민들의 정보입수경로에 대한 조사결과 방송 76.9%, 신문·잡지 15.6%, 단행본서적 1.0%, PC통신 및 인터넷 0.6%, 가족·동료·친구 5.8%, 기타 0.1%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송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고, 1996년 기준 전체 인구 중 텔레비전 시청인구의 비율이 95.6%, 주당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21.4시간인 것으로 조사되어 텔레비전의 영향력을 쉽게 알 수 있다.

과거 많은 전문가와 연구진들에 의해 대중매체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보건의료 관련 정보의 분석과 타당성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대부분 보건의료와 관련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정보중심으로 이루어져 질병양상의 변화와 국민 사인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질병에 관한 개별적 연구는 시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심혈관계 질환의 주 위험요인으로 지속적인 관리 및 예방의 중요성이 요구되어 지고 있는 고혈압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영상매체 중 TV 뉴스를 통해 보도된 고혈압관련 기사의 내용을 조사·분석하고자 한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 원인 1위인 심혈관계 질환의 주 위험요인인 고혈압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국민의 중요한 정보원인 영상매체를 이용하여 고혈압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자가관리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TV 뉴스를 통해 보도된 고혈압관련 기사의 현황을 분석한다.

둘째, TV 뉴스를 통해 보도된 고혈압관련 기사의 내용을 분석한다.

## 3. 용어의 정의

영상매체란 대중을 상대로 전파나 영상을 이용하여 정보나 오락을 제공해 주는 전파매체로서 본 연구에서는 TV를 통해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말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영상매체의 역할

대중매체(mass media)란 신문, 서적,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케이블텔레비전, 뉴미디어 등과 같이 대중을 상대로 정보나 오락을 제공해 주는 매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크게 종이매체를 제외한 인쇄매체와 전파나 영상을 이용하는 전파매체로 나누어진다. 전파매체 중 20세기 초반에 등장한 방송은 인쇄매체에 비해 그 역사는 짧으나 전파매체의 도달범위와 즉시성, 속도성, 무엇보다도 영상이 갖는 소구력으로 그 영향력은 인쇄매체에 비해 더욱 크다고 말할 수 있다(김우룡 등, 1995).

대중매체는 두 얼굴을 지닌 양면적인 존재이면서 인간의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진 중립적인 존재로 이를 활용하는 일반 수용자의 역량과 취향에 따라 역할과 기능 그리고 유용성 여부가 판가름나므로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방향이 결정되는 가변적인 존재라는 것이다(김기태, 1998). 특히 텔레비전은 영상의 이미지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다량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수용하는 현대인의 의식과 가치관 정립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대표적인 대중매체라 할 수 있다. 대중매체의 양면성에 대해 텔레비전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먼저 텔레비전의 유용론으로 첫째, 부모나 교사 이상의 영향력을 가진 사회교육 교사로서의 중요한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고 둘째, 진정한 친구로서의 의미가 사라져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공허함을 때꾸어 줄 수 있는 좋은 친구로서 화제와 오락을 제공하며 셋째, 많은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는 창구 즉 정보제공자의 기능을 하고 넷째, 직접 경험해보기 어려운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경험하게 하고 일깨워주는 좋은 인간관계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다섯째, 올바른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안목

을 기르는데 도움을 주며 여섯째,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현대인들에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오락 기재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반면 텔레비전의 유해론으로는 첫째, 현실 세계와는 상이할 뿐 아니라 개인의 내면세계를 비롯하여 다양한 대인관계 그리고 갖가지 사회관계를 매개해주는 과정에서 허구적 사실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조작하고 위장한다는 점에서 현대인들에게 매우 위험하고 둘째, 치열한 경쟁으로 다양한 흥미거리 양산에 몰두한 나머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선정성이며 셋째, 지나친 소비주의와 잘못된 소비관행을 부추기고 일부 특수층의 과소비나 파행적 소비패턴을 일반화시킨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넷째, 현대인에게 현대 자본주의사회 자체가 지니고 있는 각종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그럴 뿐 아니라 이를 시청자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다섯째, 이국적이고 세계적인 요소들을 주로 사용함으로써 지나치게 외래지향적이고 심지어는 사대주의적인 요소까지도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대중매체는 양면성을 가진 존재로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통계청(1997)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TV보급율은 전체 가구 중 컬러TV 87.9%, 흑백TV 0.5%, 비디오겸용TV 2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도 전 가구의 95% 이상이 텔레비전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영국의 경우 평균 텔레비전 이용시간은 일주일에 25~30시간 혹은 1인당 연간 거의 1,500시간에 달한다(Patrick Barwise 등, 1988).

한국언론재단에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만18세 이상 65세 미만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0년 수용자 의식조사에서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잡지, 인터넷/PC통신 등에 대한 이용 여부를 알아본 결과, 텔레비전 이용률이 9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신문(81.4%), 라디오(48.3%), 인터넷/PC통신(41.8%), 잡지(3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루 평균 이용시간도 텔레비전시청 시간이 하루 평균 174.1분(약 2시간 54분)으로 가장 길었으며, 신문은 35.1분, 라디오는 61.2분(약 1시간 1분) 정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텔레비전 프로그램 유형별 시청률에 대한 조사에서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뉴스/추적보도물, 영화, 드라마 등 12개 유형으로 구분한 다음 각 유형별 시청률을 4점 척도(거의 항상 시청한다 4점, 전혀 시청하지 않는다 1점)로 알아 본 결과, 뉴스/추적보도물에 대한 시청률이 평균 3.0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드라마(평균 2.67), 코미디/시트콤(2.46), 쇼/음악/토크/연예/오락과 스포츠중계(각각 평균 2.43), 영화(평균 2.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김신정(2001)의 프로그램 선호도 조사에서 드라마 39.9%, 쇼/오락 21.4%, 영화 18.5%, 코미디 18.2%, 스포츠 13.5%, 좌담/토론 6.3%, 기타 18.9%인데 비해 뉴스가 61.1%인 것으로 나타난 것과 동일한 결과로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 뉴스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의 영향력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텔레비전 뉴스는 속보성, 현장성, 광역성, 용이성 등으로 인해 오늘날 주정보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언론의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이민용, 1995).

## 2. 영상매체와 건강관련 정보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과 생활수준의 향상, 그리고 단순히 오래 산다는 수명연장의 의미가 아닌 양질의 삶 추구 등 국민들의 보건의료관련 정보에 대한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방송과 신문 등에서 차지하는 관련 정보의 양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건강을 유지·증진할 수 있는 식생활이나 운동, 질병예방 및 자가진단을 위한 정보, 질병치료를 위해 새로 개발된 신약과 의료기기 등 제공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도 매우 다양하다. 점차 방송 프로그램에서 보건의료 관련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뉴스에서 건강과 관련된 기사를 소개하는 고정코너가 마련되는 일 등은 이러한 추세를 잘 대변해 준다.

수용자 의식조사에서도 건강/의학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서 주로 이용하는 매체를 조사해 본 결과 텔레비전이 54.8%로 가장 많았고, 신문(25.8%), 인터넷(8.4%), 잡지(4.5%), 라디오(3.1%)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언론재단, 2000).

대중매체가 가지는 여러 가지 특징, 즉 일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 일반적으로 신뢰도가 높다는 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보도전달은 시청자로 하여금 정보내용이나 권유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하여 오래 기억하고 상기시키는데 효과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교육 영역에서 대중매체의 영향력을 적절히 활용하여 교육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중매체가 보건의료정보를 다루면서 흥미위주의 주제를 선정한다는 점, 사회적 공통의 문제가 아닌 외국의 문제나 혹은 개인적 및 사례 중심의 문제를 많이 다루는 경향이 있다는 점, 타 기관과의 과도한 경쟁으로 정확성이 결여된 정보를 내보낸다는 점등이 역기능으로 지적된다(대한의학회, 1999).

건강관련 정보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인 증명과 사실여부의 불확실성과 같은 문제를 배제할 수 없으며 여러 연구를 통해 많은 보건의료 종사자들과 연구자들이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오락 프로그램과 광고를 포함하여 전체 방송 시간의 7.2%가 건강 의료와 관련된 토픽을 다루고 있으나 제공된 건강 의료 정보의 내용은 빈약할 뿐만 아니라 정보의 70%는 부정확하거나 오보된 내용이었으며 나머지 30%만이 유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김우룡, 1997).

1999년 11월 10일자 동아일보에서는 'TV 건강정보 중 16.8% 몸에 해롭다'라는 기사로 대한의학회와 한국언론재단이 공동으로 가진 '건강보도의 실태와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산하 17개 학회가 공중과 TV 건강정보프로그램의 과학적 건전성과 유해성 등을 평가 조사한 연구결과, KBS1·2와 MBC, SBS 등 공중과 TV 4개 채널이 96부터 97년까지 방영한 건강정보프로그램 191편 가운데 32편(16.8%)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운 정보를 전한 것으로 나타났고, 32편 중 12편(6.3%)은 아예 건강에 해로운 행위를 권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는 내용이 실렸다.

이 연구에서는 개발된 적절성 평가방법에 의거하여 총 221편의 프로그램 중 단순 보도성, 안내 및 동정, 또는 진료 안내 등을 다룬 30편을 제외한 191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과학적 건전성, 누락 또는 과장 여부, 유해성 여부, 그리고 유해한 행위 유발가능성 여부, 그리고 방영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유익성 여부 등

을 평가하였다. 방영된 221편의 프로그램 현황을 프로그램 편집 형태별로 분류해 보면 뉴스시간에 방영된 것이 134편(60.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교육형 토크로 46편(20.8%), 그 외 오락과 혼합형태(21편) 또는 강의교습 15편, 기타 5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제별로 보면 특정 질환에 대한 보건의학적 내용을 다룬 경우가 전체의 64.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건강증진 차원에서의 문제접근은 17.9%, 식품 및 영양을 다룬 내용은 2.7%로 가장 낮았다. 의료단계별로 보면 치료 및 재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아 전체 프로그램의 56.1%, 발병기전 및 병태생리에 관한 내용으로 48.9%, 예방이나 위험인자에 관한 내용은 37.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문가 참여 여부를 조사해 본 결과 의사가 68%, 한의사가 14%, 대체요법가 5.7%, 해당 전문분야에 적합한 전문가가 불분명한 경우도 10%이상 되었다.

과학적 건전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총191편 중 159편(83.2%)이 과학적 건전성이 인정되었으나 32편(16.8%)의 내용에서 과학적 건전성을 인정할 수 없었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12편(6.3%), 오류 및 검증이 불가능한 것이 20편(10.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필수적 정보의 누락에서는 총191편 중 필수적 정보의 누락이 있다고 평가된 프로그램은 28편으로 전체의 14.7%이었고, 나머지 약 85%에서는 필수적 정보의 누락이 없었다. 과장된 정보 여부에서는 과장된 정보가 있다고 평가된 프로그램은 29편으로 전체의 15.2%, 나머지 약 85%에는 정보의 과장은 없었다. 정보의 유해성 평가에서는 총 191편 중 건강에 유해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10.5%인 20편, 불필요한 건강행위 또는 낭비를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프로그램은 13.1%인 25편, 건강에 해로운 행위를 직접 권유한 프로그램은 6.3%인 12편에 이르렀다. 마지막으로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이 국민의 건강과 건강에 대한 지식, 태도나 행동에 미칠 수 있는 보건교육적 측면에서 얼마나 유익할 것이냐는 점에서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유익성을 평가해본 결과 총 191편 중 29.8%는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이며, 48.7%는 그런대로 유익할 것으로 평가되어 3/4이상이 유익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전체 프로그램 중 2.6%인 5편과 8.4%인 16편은 국민의 건강에 해로울 소지가 크거나

그럴 소지가 있으며, 나머지 약 10%인 10편은 무해무익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하였으나 일부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텔레비전 뉴스에 보도된 건강관련 정보의 건강성과 해독성에 관한 김신정 등(2001)의 연구에서는 1998년 12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만 1년 1개월 동안 방송된 KBS의 밤 9시 뉴스를 대상으로 건강관련 보도 489개를 분석하여 이를 건강유지 및 증진, 생명윤리, 성장 및 발달, 질병예방, 질병치료를 범주화한 결과 건강유지·증진에 279개(57.3%)로 가장 많았고 질병예방이 114개(23.2%), 질병치료가 73개(14.9%), 생명윤리가 20개(4.0%), 성장발달이 3개(0.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강유지·증진에 포함된 뉴스로는 식품위생, 건강위협 요인, 보건의료행정 등 20개 부문에 걸쳐 전체의 57.3%를 차지하였고, 생명윤리와 관련된 보도로는 인간복제, 인권침해, 안락사, 뇌사, 생명경시, 장기매매 등이 전체의 4.0%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또한 질병예방과 질병치료를 범주에 속하는 보도에 있어서는 감염성 질환(33.2%)이 가장 많았고 기타(18.7%), 감각신경계질환(13.9%), 종양(13.4%), 호흡기계질환(6.4%), 근골격계질환(3.7%), 소화기계질환(3.2%), 대사성질환(2.1%), 주산기질환(1.6%), 피부질환(1.1%), 정신질환(0.6%)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은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향상과 평균수명의 연장에 기인한 것으로 과거의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닌 보다 질 높은 삶에 대한 추구로 이어졌다. 더불어 전문적인 의학지식으로의 접근이 어려운 일반 대중에게 텔레비전은 건강정보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보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텔레비전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건강정보는 텔레비전의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국민의 건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 고혈압

고혈압은 심각한 순환기 계통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만성질환으로써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유병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예방의학과 공중보건 편집위원회, 1996; 황정희 등, 2000). 1990년에 실시한 우리나라의 전국 혈압조사에 의하면 고혈압 가족력, 연령, 음주, 비만 등이 혈압과 강한 연관성을 보여 고혈압의 위험요인 중에서도 생활행태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김정순, 1991; 황정희 등, 2000). 확정 고혈압 유병율은 12%정도, 40세 이상 인구에서는 16~19%, 경계역 고혈압 25~28%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01).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의 강구와 함께 국민들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교육 및 환경여건의 조성, 질병예방관리사업을 추진토록 규정하였다(보건복지부, 1999). 또한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추진과 활성화를 위한 기금을 담배사업자의 기여금(갑당 2원씩 출연)과 의료보험자의 부담금(예방사업비 5%)으로 조성하여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02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계획에 의하면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조성된 금액은 총 28,965백 만원으로 이중 고혈압 관련 사업집행 예산액은 국민건강증진사업 가운데 고혈압 예방 교육 사업 100백 만원, 보건소 고혈압·당뇨병 관리사업 918백 만원으로 총 1,018백 만원이 책정되어져 있어 고혈압관리의 중요성 인식에도 불구하고 예방사업과 관련한 재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그 동안 선진국에서는 1차 및 2차 예방의 노력에 의해 순환기계질환에 의한 사망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2차 예방은 초기사망의 경우 무의미하므로 순환기계질환의 위험요

인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1차 예방이 필수적이다. 순환기계 질환의 위험요인 중 많은 것이 관리 가능한 것들이며 그 중 고혈압관리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문현경 등, 1999).

최근 우리나라는 고혈압관리의 중요성과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 및 관리사업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으로 보건소 중심의 관리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고혈압 관리 사업이 갖는 문제점으로 첫째, 내소자 중심의 관리로 인해 환자 발견사업을 통하여 등록된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으며 전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조기발견과 위험요인 예방에 대한 홍보 및 보건교육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등록된 환자 진료의 치료순응도가 낮은 실정이다. 둘째, 등록관리의 비체계성으로 등록관리자들의 정보가 종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해 치료적 관리와 행위교정에 관한 교육이 분리되어 실시되고 있고 행위교정을 위한 교실운영이 일회성 수행성격이 강하며 등록자들에 대한 관리 효과 및 효율성에 대한 실태가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구체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전략 및 인력의 전문성 미흡으로 만성퇴행성 질환의 관리와 전략상 상호보완관계에 있지만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추진전략이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의료인, 운동·영양담당 인력들의 구체적인 실무에 대한 전문성 보완이 요구되어진다(보건복지부, 2001).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국가정책으로서 정부주도하에 고혈압관리 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나 국민의 고혈압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자가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예방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부족한 실정이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TV뉴스에 보도된 고혈압관련 기사 내용을 분석한 내용분석 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연구대상은 TV뉴스에 보도된 고혈압 관련 기사로서 야후 코리아(<http://kr.yahoo.com>)의 검색엔진을 사용하여 검색하였다. 분석대상 자료는 1999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3년간 방송3사(MBC, KBS1·2, SBS)에서 TV뉴스에 보도된 고혈압 관련 기사를 선택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방송3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진 뉴스기사 중 '고혈압'이라는 검색어를 통해 출력된 자료에서 단순 사고 기사를 제외한 총134개의 기사를 표집하였다.

#### 3. 자료분석 방법

자료분석은 내용분석 절차에 따라 TV뉴스에 보도된 고혈압관련 정보를 연구자간에 내용검토와 논의를 통해 내용분석틀을 결정하였다. 우선 예방, 고혈압의 치료 및 관리, 고혈압의 합병증 관리의 세 영역으로 범주화하였다. 또한 세 영역을 각각 위험요인, 관리방법으로 세분하였고 위험요인의 경우에는 흡연, 음주, 과식, 비만, 스트레스, 유전, 계절, 과한 운동, 고지방, 고염분, 고콜레스테롤로 구분하였고 관리방법은 약물복용, 혈압측정, 식이조절, 지방제한, 염분제한, 콜레스테롤 조절, 운동, 새로운 의료가 기술 개발, 건강식품 섭취, 금연, 금주/절주로 구분하여 이 구분된 범주에 따라 코딩하였는데, 코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2001년 12월의 최근 기사부터 7일간 조사, 코딩한 후 연구자들의 검토를 거쳐 단순사고 기사를 제외한 연구대상 기간의 기사 전부를 코딩하였다. 각각의 범주에 대해 빈도와 비율을 구하였고 방송사별, 프로그램별, 방송시간별, 보도분야별, 연도별, 월별 빈도와 비율을 산출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TV뉴스에 보도된 고혈압관련 기사 현황

TV뉴스를 통해 보도된 고혈압관련 기사의 현황을 방송사별, 프로그램별, 시간대별, 보도분야별, 연도별로 살펴보았다. 먼저 방송사별 기사수를 살펴보면 총 134개 중 KBS가 84개(62.6%)로 가장 많았고 다음

〈표 1〉 방송사별, 프로그램별 고혈압관련 기사 분포

방송사	프로그램명	빈도	비율
MBC	뉴스데스크	32	23.9
KBS	뉴스9	50	37.3
	뉴스광장	7	5.2
	뉴스7	1	0.8
	930뉴스	5	3.7
	뉴스투데이	16	11.9
	뉴스네트워크	3	2.2
	뉴스5	2	1.5
	소 계	잘못된 계산식	잘못된 계산식
SBS	뉴스	10	7.5
	8시뉴스	8	6.0
	소 계	잘못된 계산식	잘못된 계산식
합 계		134	100.0

으로 MBC와 SBS순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뉴

스 프로그램별로는 KBS의 9시뉴스가 50개(37.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MBC의 뉴스데스크가 32개(23.9%), KBS의 뉴스투데이가 16개(11.9%), SBS 뉴스가 10개(7.5%)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1).

방송시간대별 고혈압관련 기사수는 낮12시를 기준으로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볼 때 90%이상의 고혈압 관련 기사가 오후에 집중적으로 보도되고 있었으며, 세부적으로 시간대를 살펴보면 오후 9시 뉴스에 전체의 62.5%로 가장 많이 보도되었고 다음으로 8시 뉴스 12.0%, 7시 뉴스 10.3%, 오전 6시 뉴스 6.5% 순으로 분석되었다(표 2).

〈표 2〉 방송시간대별 고혈압관련 기사 분포

방송시간	빈 도	비 율
6:00	12	6.5
9:00	4	2.2
16:00	11	6.0
17:00	1	0.5
19:00	19	10.3
20:00	22	12.0
21:00	115	62.5
계	69	37.5.0

보도분야별로는 사회분야에서 48개(35.8%), 과학 분야 35개(26.1%), 국제분야 21개(15.7%) 순으로 나타났고, 생활건강분야에서는 15개(11.2%)로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도되는 고혈압관련 기사가 적은 편이었다(표 3).

〈표 3〉 보도분야별 고혈압관련 기사 분포

보도분야	빈 도	비 율
사회	48	35.8
경제	5	3.7
정보과학	7	5.2
국제	21	15.7
과학	35	26.1
생활건강	15	11.2
정치	3	2.3
계	131	97.7.0

방송연도별 고혈압관련 기사의 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도가 91개로 전체의 67.9%를 차지하였고, 2000년도는 27개(20.2%), 1999년도는 16개(11.9%)

로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방송되는 고혈압관련 기사의 수도 증가하고 있었다.

계절별, 월별로 고혈압관련 기사수를 살펴보면 커다란 차이는 없이 비슷한 분포를 이루며 보도되고 있었는데 계절별로는 겨울이 27.6%, 가을 26.9% 순으로 보도되었다. 월별로는 12월이 12.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11월과 8월이 각각 15개(11.2%), 9월과 2월이 11개(8.2%)로 조사되었다(표 4).

〈표 4〉 계절별, 월별 고혈압관련 기사 분포

계절	월	빈 도	비 율
봄	3월	9	6.7
	4월	9	6.7
	5월	10	7.5
소 계			
여름	6월	10	7.5
	7월	8	5.9
	8월	15	11.2
소 계			
가을	9월	11	8.2
	10월	10	7.5
	11월	15	11.2
소 계			
겨울	12월	17	12.7
	1월	9	6.7
	2월	11	8.2
소 계			
합 계		134	잘못된 계산식.0

## 2. TV뉴스에 보도된 고혈압관련 기사의 내용 분석

TV뉴스를 통해 보도된 고혈압관련 기사의 내용을 고혈압 예방과 고혈압의 치료 및 관리, 고혈압의 합병증 관리의 세 영역으로 분류하여 기사에 포함된 내용을 중심으로 한 기사에 여러 개 내용이 같이 보도되는 것을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영역별로는 고혈압 치료 및 관리(42.9%), 예방(37.0%), 합병증 관리(20.1%)의 순이었다(표 5).

방송사별로 고혈압 예방, 치료 및 관리, 합병증 관



〈표 5〉 방송사별 고혈압 예방, 치료 및 관리, 합병증 관리 기사 분포

항목	예 방	치료 및 관리	합병증 관리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MBC	16(38.1)	21(50.0)	5(11.9)
KBS	46(39.3)	43(36.8)	28(23.9)
SBS	6(24.0)	15(60.0)	4(16.0)
합계	68(37.0)	79(42.9)	37(20.1)

리에 관한 기사의 빈도를 살펴보면 MBC와 SBS에서는 고혈압 치료 및 관리 기사가 전체 기사의 50% 이상이었고 KBS에서는 고혈압 예방, 치료 및 관리, 합병증 관리 순으로 비슷하게 보도하였다(표 5). 시간대 별로는 오전에 합병증 관리, 오후에는 고혈압 치료 및 관리 방법, 예방에 대한 기사가 많이 보도되었다(표 6).

〈표 6〉 시간대별 고혈압 예방, 치료 및 관리, 합병증 관리 기사 분포

항목	예 방	치료 및 관리	합병증 관리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오전	2(12.5)	4(25.0)	10(62.5)
오후	66(39.3)	75(44.6)	27(16.1)

월별로 고혈압 예방, 치료 및 관리, 합병증 관리 기사를 살펴보면 여름에는 고혈압 예방에 관한 기사, 봄과 가을, 겨울에는 고혈압 치료 및 관리에 관한 기사가 상대적으로 많이 보도된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7).

또한 보도된 고혈압관련 기사를 각 영역별로 포함된 내용에 대해 위험요인과 치료방법을 중심으로 분석하

였다. 예방에서는 위험요인에 관한 기사가 32개(47.1%), 치료 및 관리와 합병증 관리에서는 치료방법에 관한 기사가 각각 43개(54.4%), 17개(46.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8).

고혈압 예방관련 기사를 흡연, 음주, 과식, 비만 등 위험요인에 관한 것을 영역별로 분석한 결과, 예방의 경우 비만에 관한 기사가 전체의 13개(40.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흡연, 음주 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치료 및 관리 영역에서는 위험요인으로 비만에 관한 것 2개(40.0%), 스트레스, 계절적 요인, 과한 운동에 대한 것을 관리해야 하는 내용으로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병증 관리 영역에서 위험요인 관리로는 계절적 요인 4개(33.3%), 흡연, 음주, 비만, 스트레스 관리를 중심으로 보도되었다(표 9).

고혈압 예방을 위한 관리방법에 관한 기사로 운동에 관한 기사가 10개(47.6%)로 가장 많았고 이외 식이 조절, 염분제한, 건강식품 섭취, 정기적인 혈압측정, 콜레스테롤 조절, 체중조절과 관련된 내용이 보도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혈압 치료 및 관리의 방법으로는 운동에 관한 기사가 12개(28.0%)로 가장 많았고, 건강식품 섭취 8개(18.6%), 새로운 의료기술 개발 6개(14.0%), 약물복용, 정기적인 혈압측정 순으로 조사되었다. 합병증관리의 방법에 관련된 기사로는 식이조절이 4개(23.5%)로 가장 많았고 운동, 금연, 정기적 혈압측정, 금주/절주 순이었다. 그 외 기타내용으로는

〈표 7〉 월별 고혈압 예방, 치료 및 관리, 합병증 관리 기사 분포

계절	월	예 방	치료 및 관리	합병증 관리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봄	3월	4(5.9)	5(6.3)	2(5.4)
	4월	5(7.4)	3(3.8)	1(2.7)
	5월	2(2.9)	6(7.6)	4(10.8)
	소 계	잘못된 계산식 (16.2)	잘못된 계산식 (17.7)	잘못된 계산식(18.9)
여름	6월	7(10.3)	9(11.4)	1(2.7)
	7월	11(16.2)	5(6.3)	-
	8월	7(10.3)	6(7.6)	12(32.4)
	소 계	잘못된 계산식 (36.8)	잘못된 계산식 (25.3)	잘못된 계산식 (35.1)
가을	9월	6(8.8)	5(6.3)	2(5.4)
	10월	6(8.8)	5(6.3)	3(8.1)
	11월	5(7.4)	9(11.4)	6(16.2)
	소 계	잘못된 계산식(25.0)	잘못된 계산식 (24.0)	잘못된 계산식 (29.7)
겨울	12월	6(8.8)	10(12.7)	5(13.5)
	1월	3(4.4)	8(10.1)	1(2.7)
	2월	6(8.8)	8(10.1)	-
	소 계	잘못된 계산식 (22.0)	잘못된 계산식 (32.9)	잘못된 계산식 (16.2)
합 계		68(100.0)	79(99.9)	37(99.9)

〈표 8〉 영역별 위험요인, 관리방법의 기사 분포

항 목	예 방	치료 및 관리	합병증 관리
위험요인	32(47.1)	5(6.3)	12(32.4)
관리방법	21(30.9)	43(54.4)	17(46.0)
기타	15(22.0)	31(39.3)	8(21.6)
계	68(100.0)	79(100.0)	37(100.0)

〈표 9〉 영역별 위험요인에 관한 기사 분포

세부내용	예 방	치료 및 관리	합병증 관리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흡연	5(15.6)	-	3(25.0)
음주	4(12.5)	-	2(16.7)
과식	1(3.13)	-	-
비만	13(40.6)	2(40.0)	2(16.7)
스트레스	3(9.4)	1(20.0)	1(8.3)
유전	2(6.3)	-	-
계절	-	1(20.0)	4(33.3)
과한운동	-	1(20.0)	-
고지방	-	-	-
고염분	3(9.4)	-	-
고콜레스테롤	1(3.1)	-	-
계	32 (100.0)	5(100.0)	12(100.0)

〈표 10〉 영역별 관리방법에 관한 기사 분포

세부내용	예 방	치료 및 관리	합병증 관리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약물복용	-	3(7.0)	-
혈압측정	1(4.8)	3(7.0)	2(11.8)
식이조절	4(19.0)	6(14.0)	4(23.5)
지방제한	-	1(2.3)	-
염분제한	2(9.5)	1(2.3)	-
콜레스테롤 조절	1(4.8)	-	1(5.9)
체중조절	1(4.8)	1(2.3)	-
운동	10(47.6)	12(28.0)	3(17.6)
새로운 의료기술 개발	-	6(14.0)	2(11.8)
건강식품 섭취	2(9.5)	8(18.6)	-
금연	-	-	3(17.6)
금주/절주	-	2(4.6)	2(11.8)
계	1(100.0)	43(100.0)	17(100.0)

고혈압 환자의 인지율 저조, 유병률·사망률·내원율의 급증, 보험재정의 부담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 노인인구증가와 생활환경의 변화가 고혈압급증의 주요인이 되는 것, 두통이 고혈압과 무관하다는 등의 내용이 보도된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10).

예방관련 기사에서 기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는 일 반피임약, 아스피린, 커피의 과다복용, 코고는 것 등이 혈압상승과 관련 있다는 것, 비아그라 복용이 고혈압환 자에게 위험하다는 것, 학회와 보건소의 고혈압 예방할

동 등의 내용이 보도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외 고혈압이 뇌졸중과 알츠하이머병, 신부전증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 고혈압의 합병증인 뇌·혈관질환의 급증, 칼슘·마그네슘 함유된 물이 심장병 의 위험성을 감소시킨다는 것 등의 내용이 보도된 것 으로 분석되었다.

## V. 요약 및 결론

현대사회에 있어서 대중매체, 그 중에서도 영상의 이미지를 통해 신속하게 다량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텔레비전은 국민들에게 중요한 정보원이 되고 있다. 특히 텔레비전의 뉴스는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이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국민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은 평균 수명 및 노인인구의 증가를 가져왔고 더불어 질병양상에 있어 서도 과거의 급성질환에서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변화 하면서 이는 중요한 보건문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고 혈압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높은 유병률과 심각한 합병증으 로 국민의료비 증가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TV뉴스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되 는 고혈압관련 정보의 현황과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향 후 대중매체를 이용한 대국민 고혈압 교육사업에 유용 한 자료원으로 이용하고자 하였다.

연구에서 이용한 자료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방송3사(MBC, KBS1·2, SBS)에서 방송된 고혈압관련 기사 중 단순사고 기사를 제외한 총134개 의 기사를 대상으로 방송사별, 프로그램별, 시간대별, 보도분야별, 연도별, 월별 빈도를 조사하였고, 다시 결 정한 영역별로 위험요인, 관리방법, 그 외 기타 범주로 분류하여 빈도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방송사별, 프로그램별 빈도 조사에서는 KBS와 동 방송사의 9시 뉴스가 총 134개 기사 중 각 각 84개(62.6%), 50개(37.3%)로 가장 많은 기사를 보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방송 시간대별로는 대부분 오후에 편중되어 있었고 그 중에서도 9시대에 전체의 62.5%인 115개가 방송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는 오후8시, 7시, 오전 6시 순으로 나타났다.

보도분야에서는 사회, 과학, 국제순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생활건강분야의 기사수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었다.

방송연도에서는 해마다 기사수가 급증하여 1999년도의 16개(11.9%)에 반해 2001년도에는 91개(67.9%)인 것으로 나타났고, 월별로는 12월, 11월, 8월에 가장 많았고, 계절별에서도 가을, 겨울에 방송 기사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방', '치료 및 관리', '합병증 관리'로 영역을 분류하고 각각을 위험요인, 관리방법, 기타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 및 관리'가 79개(42.9%),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예방'이 68개(37.0%), 합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합병증 관리'가 37개(20.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예방에서는 위험요인, 치료 및 관리와 합병증 관리에서는 관리방법에 관한 기사의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의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비만, 흡연, 음주 순으로, 관리방법에 대해서는 운동, 식이조절 순으로 기사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치료 및 관리의 위험요인에 관해서는 비만, 관리방법에서는 운동, 건강식품 섭취, 식이조절, 새로운 의료기술 개발 순으로 나타났다. 합병증 관리에서 위험요인으로는 계절, 흡연, 음주, 비만, 관리방법에서는 식이조절, 운동, 금연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방송사별로 고혈압의 예방, 치료 및 관리, 합병증 관리에 있어 비중을 두는 분야가 차이가 있어 MBC와 SBS는 치료 및 관리, KBS는 예방에 관한 기사를 많이 보도하였다. 고혈압 관련 기사는 오후에 편중되긴 하였으나 오전에는 합병증 기사, 오후에는 치료 및 관리에 관한 기사가 많았다. 월별로도 고혈압관련기사내용에 차이가 있어 여름에 예방에 관한 기사가, 봄과 가을, 겨울에는 치료 및 관리에 관한 기사가 상대적으로 많이 보도되고 있었다.

따라서 고혈압이라는 질병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온이 높은 계절에는 예방기사가, 기온이 낮은 계절에는 고혈압의 치료 및 관리에 관한 기사가 상대적으로 많이 보도되고 있으나 영상매체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고혈압의 예방, 치료 및 관리, 합병증 관리에 관련

된 정보가 편중됨이 없이 보도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고혈압관련 기사내용의 정확성, 건전성, 해독성 등 내용의 질을 분석하지 못하였는데 향후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민에게 유익하고 정확하며 건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국민고혈압사업단(2001). 기자간담회 자료.
- 권순원(2001). 일본의료비의 동향. 건강보험동향.
- 김기순(1997). 지역사회 고혈압 관리체계. 한국농촌의학회지, 22(2), 301-307.
- 김기태(1998). 대중매체가 국민건강에 끼치는 영향과 중요성. 한국영양학회 춘계학술대회지.
- 김신정 외 (2001). TV뉴스에 보도된 건강관련 정보의 건강성과 해독성.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2(2), 513-531.
- 김우룡, 정인숙(1995). 현대 매스미디어의 이해. 나남출판.
- 김우룡(1997). 의료보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신문과 방송, 319, 84-86.
- 김창보(2001). 건강보험 노인급여비 추계. 건강보험동향.
- 대한의학회(1999). 국내 공중과 TV를 통한 건강정보의 적절성 평가 연구.
- 문현경, 정효지(1999). 노인집단을 대상으로 한 고혈압의 식이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영양학회지, 32(1), 90-100.
- 보건복지부(1999).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의 운영 및 평가체계 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2001). 국민건강증진사업 편람.
- 보건복지부(2001). 2001년도 고혈압·당뇨관리사업 지침.
- 보건복지부(2001). 2002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 계획.
- 유승홍, 양재모(1994). 의료총론. 수문사.
- 윤지희, 권순만(1999). 일간신문의 병원과 관련된 기사 분석. 병원경영학회지, 4(2), 60-84.
-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5). 국민건강 및 보건위식행태 조사.
- 한국언론연구원(1995). 다채널 다매체시대 TV뉴스.

• 영상매체의 고혈압관련 기사 내용 분석 •

황정희 외(2000). 고혈압 환자의 건강행태. 보건교육 · 건강증진학회지, 17(1), 115-123.

통계청(1997, 1999). 통계연보.

Barwise, P., & Ehrenberg, A. (1988). Television and Its Audience. SAGE Publication. 1988.

ABSTRACT

## An Analysis on the Contents Related to Hypertension in the Television Broadcast

**Ko, Il Sun · Lee, Tae Wha · Kim, Eui Sook**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Nursing Policy Research Institute)

**Lee, Sun Mi**(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Lee, Jung Ja**(National Hypertension Center)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hypertension related information on the mass-media. Data were collected on the hypertension related reports in three major broadcasting centers, KBS1·2, MBC, SBS, for 2 years, 1999-2001. Sample of the study was 134 repor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re were differences in frequencies by broadcasting center and programs. KBS and 9PM News were highest in proportions, 62.6% and 37.3% respectively. 2. In regard to reporting time, 90% were reported in the afternoon, and 62.5% of those reports were in 9 PM, followed by 8PM, & 7PM, and 6AM. 3. In regard to area of the report, 35.8% belonged to social section, followed by 26.1% science, 15.7% international, and 11.2% life and health. 4. In terms of monthly distribution, December, November, and August had higher proportion of reports than other months as well as fall and winter. 5. There were higher proportion of reports containing 'treatment and management' with 'complication management' targeted to 'patients' than 'prevention' targeted to 'general population' in terms of content of the report.

In summary, MBC and SBS were more focused on 'treatment and management' with KBS more focused on 'prevention'. There were more 'prevention' related reports in summer, and 'complication management' reports in the morning with 'treatment and management' reports in the afternoon.

**Key Words** : Hypertension, Mass-media, Broadcasting reports